

노년기 정서 표현과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유 경[†]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노년기 정서 표현과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65세 이상의 노인 214명(평균연령 72.83세, 표준편차 5.55)을 대상으로 정서 표현,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고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서 표현에 있어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에 있어서는 성차가 나타났다.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이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노인은 경제 상태, 정적 표현, 부정적 표현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성 노인은 정적 표현,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년기 정서적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정서 표현과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갖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서 표현,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 정서 경험, 노화, 주관적 안녕감, 성차

정서 표현과 적응

정서 표현(emotional expressiveness)은 경험하는 정서를 외부로 표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정서 표현과 관련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표현을 잘 하는 것이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설명한다. 표현을 잘 하는 사람들은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더 받고(DePaul, 1992), 눈에 더 잘 띄며(Sullins, 1989), 타인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Riggio, & Friedman, 1982), 삶의 만족감이 더 높고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경험

하기도 하며,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서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Emmons & Colby, 1995). 정서 표현을 통해 자기 이해는 물론이고 적응적인 사회적 의사소통이 증진되고 그에 따른 대처 노력을 촉진할 수 있다(Kennedy-Moore & Watson, 1999). Lieberman, Eisenberger, Crockett, Tom, Pfeifer, 및 Way(2007)는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정서 표현의 긍정성을 주장하였는데, 특정 부정 정서를 경험한 경우, 간단한 정서 표현만으로도 정서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고 정서표현을 하는 동안 fMRI의 촬영 상 정서

† 교신저자: 유 경,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48번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전화:043)261-3626
E-mail: Kyung0508@hotmail.com

충동조절을 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서 표현을 억누르는 경우, 자율신경계 활동이 증가하게 되며, 만성적인 자율신경계 각성은 심리적, 신체적 질환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eberman et al., 2007). Freud(1917) 이래로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않고 담아두는 것은 여러 가지 심리적, 신체적 병인이 된다고 간주되어 왔다(Fridlund, Newman, & Gibson, 1984; Pelletier, 1985). 정서 표현이 암이나 관상 동맥형 심장 질환 외에 다른 여러 신체적 질환들과 연관되며,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여러 심리적, 신체적 부적응을 낳게 된다(Cox & McCoy, 1982; Jesen, 1987; Pelletier, 1985). 그러나 표현을 하지 않는 억압형의 사람들이 보다 표현적인 민감형의 사람들보다 자신의 건강에 관한 문제를 덜 표출한다는 연구(Bell & Byrne, 1978)에서 강조되었듯이 단순히 표현을 못하는 것 자체를 병리적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

Pennebaker(1985)는 정서 표현의 결핍 자체가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율신경계의 만성적인 각성이 초래되고 그 결과 신체적 질환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이 표현적인가 표현적이지 못한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서 표현에 대한 욕구가 사회규범이나 다른 목표들과 갈등을 유발할 때 심리적, 신체적 질환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정서 표현 양가성과 적응

정서 표현의 기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특성이 알려지면서 많은 연구자들은 표현이나 억압 행동 자체 보다는 표현 욕구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하고, 표현을 잘 하지 않는 특성의 이면에 존재하는 심리적 갈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Josephs, Williams, Irwing, & Cammock, 1994; Pennebaker, Barger, & Tiebout, 1989). King과 Emmons(1990; 1991)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목표들 간에 갈등이 생길 때 목표에 대한 생각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며 정작 실제 성취를 위해서는 시간을 훨씬 적게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들 간의 갈등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의 특성을 정

서표현과 관련지어 정서 표현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개념을 제안하였다. 정서 표현 양가성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정서 표현을 억제하지 않거나 양가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발달하면서 복합정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요구나 표현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대인관계에 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은 표현 규칙(display rule)에 따라 정서를 표현하며 억제하고,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경험하기도 한다.

King과 Emmons(1990)는 정서 표현에 대해 갈등하는 정도에 개인차가 있다는 전제 하에 정서 표현 양가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정서 표현 양가성 척도는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적극적으로 억제하거나, 정서를 표현한 것을 후회하거나, 원하지 않는 정서를 표현하는 등 욕구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를 사용하여 실시한 King과 Emmons(1990, 1991)의 연구에 의하면, 정서표현과 적응지표들 간의 관계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표현 양가성은 정서 표현을 통제하고도 자존감과 삶의 만족과 같은 적응지표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신경증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고통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서표현에 양가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공감이나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으며(Emmons & Colby, 1995), 심리적 안녕감과 결혼 만족도가 낮고(King, 1993), 반추 사고와 우울증을 많이 보인다(Morgrain & Zuroff, 1994).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정서 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은 정서 표현은 잘 하지 못하고, 심리적 부적응 및 신체 질환이 많으며, 문제 중심적 대처 보다는 정서 중심적 대처나 미숙한 방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유주현, 2000; 이승미, 오경자, 2006;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최해연, 2008).

연령에 따른 정서 표현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차이

노년기 정서 표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얼굴 표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Malatesta, Flore, 및

Messina(1987)는 노인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정서 상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하지 않으며, 정서 표현의 강도가 낮다는 것을 밝혔다. Malatesta와 Izard(1984)는 중년과 노년기의 여성들은 정서 표현에 있어 위장(masking)을 잘 하며, 여러 정서를 혼합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정서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들은 정서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거나 정서 표현을 꺼리는 특성이 다른 연령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노인들이 청년 집단에 비해 정서 표현을 잘 하지 않는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두 가지 설명이 제안되고 있는데,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통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서 복잡성(emotional complexity)이 증가하기 때문에 특정 정서를 두드러지게 표현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는 입장과 노인들이 노년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친밀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심리적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안녕감을 해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표현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기 때문에 정서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노년기 정서 복잡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Carstensen, Pasupathi, Mayr, 및 Nesselrode(2000)는 정서 복잡성 측정을 위해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경험하는 여러 정서들을 각기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정서 변별 능력과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를 동시에 경험하는 특성을 알아보는 정서에 대한 예리함을 측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년에 비해 노인들은 여러 정서가 동시에 경험하는 혼합 정서를 보다 빈번하게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경험하는 여러 가지 정서 각각에 대해 잘 이해하는 정서 복잡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Labouvie-Vief와 Medler(2002)의 연구에서도 연령 증가에 따른 정서 복잡성의 증가는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노년기에는 정서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한 상황에서 다양한 측면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정서 경험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정

서 경험이 혼합되어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인들이 청년에 비해 정서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노년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이 정서 표현을 잘 하지 않게 되는 이유로 정서 조절의 특성을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이 대인관계 유지를 위해서 직접적인 표현 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대처하려는 특성이 더 강해서 정서 표현을 덜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Blanchard-Fields, 1998). 노년기에는 친밀한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정서 표현은 삼가고 대인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서 표현을 하게 된다(Carstensen, 1999). 분노와 같은 정서는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협 정서이므로(Gross, Carstensen, Pasupathi, Tsai, Skorpen, & Hsu, 1997), 노인들은 가까운 대인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적 정서의 표현을 꺼린다. 노인들은 대인관계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분노를 간접적으로 다루려는(예; 회피) 특성을 나타내지만(Timmers, Fischer, & Manstead, 1998), 슬픔을 표현함으로써 얻어지는 암묵적 이득은 친밀감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분노에 비해 슬픔은 가까운 관계에서 표현을 더 많이 한다(Kubany, Fischer, & Manstead, 1998; Tiedens, 2001; Zeman & Garber, 1996). 즉, 노인들이 노화에 따라 단순히 정서 표현을 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친밀함을 촉진시켜주는 정서는 표현을 하지만 대인관계에 위협이 되는 정서는 표현하지 않거나 표현을 덜 함으로써 정서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노년기의 가까운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유 경, 민경환, 2005; Brandstädter & Rothermund, 2002; Brandstädter, Wentura, & Greve, 1993; Blanchard-Fields, 1989; Coats & Blanchard-Fields, 2008; Heckhausen, 1997; Labouvie-Vief, Hakim-Larson, & Hobart, 1987; Lang & Carstensen, 2002)

연령 증가에 따른 정서 표현과 정서 표현 양가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에서 실시된 유 경(2007)의

연구에 의하면, 정적 표현과 부적 표현은 연령 증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친밀표현은 청년에 비해 중년과 노년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표현 양가성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노년 집단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정서 표현 양가성은 노년집단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연령 증가에 따른 정서 표현과 정서 표현 양가성의 차이를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였지만 발달적 변화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노년기에 국한하여 정서 표현과 정서 표현 양가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러한 특성이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주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노인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서 표현을 덜 한다는 특성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많이 확인되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단순히 정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정서 표현을 하는 것 보다 부정적인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더 중요한 것은 정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나 이를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있어 친밀한 인간관계 유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노년기의 정서표현과 정서 표현 양가성은 노년기 적응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성차에 따른 정서 표현과 정서 표현 양가성

정서자각, 정서 표현, 그리고 정서 표현 양가성과 같은 정서 관련 변인들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Barret, Lane, Sechrest, & Schwartz, 2000; Gross & Levenson, 1993; Gross & John, 1995; King & Emmons, 1991). 정서 표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표현적인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정서 표현을 더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oss & Levenson, 1993; Gross & John, 1995; 2003). 정서 표현의 강도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강하게 표현을 하며, 여성은 남성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고 더 공감적이며, 타인의 정서 표현을 더 잘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에 비해 부적 정서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dy, 1999; Kring & Gordon, 1998; Lennon & Eisenberg,

1987). 장정주와 김정모(2008)의 연구에서도 정서 표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이 하고,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서표현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더 정서적이고, 정서 표현을 더 잘 하며 정서표현 양가성은 남성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부분 노년기가 아닌,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라 노인의 정서 표현과 정서 표현 양가성의 특징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노년기 정서적 특성에서의 성차와 관련하여 일련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부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주관적 안녕감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경, 이주일, 강연옥, 박근석, 2009; Adelman, Antonucci, Crohan, & Coleman, 1989; White & Edwards, 1990). 이와 같은 정서 경험에서의 성차는 여성의 불리한 사회적 지위, 수명이 길지만 취약한 건강상태, 배우자의 사망, 낮은 교육 수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정서 대처와 관련해서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역기능적 대처로 알려진 수동의존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경, 강연옥, 2009). 정서 표현과 관련해서 노인 부부 대상으로 실시한 Monin, Martire, Schulz, 및 Clark(2009)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간 상호작용에서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애정, 기쁨, 슬픔 등의 대인 관계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친애 욕구가 높기 때문에 타인에게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남성에 비해 높으며(LaFrance & Banaji, 1992), 부적 정서 중 특히 관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분노, 불안, 공포와 같은 부적 정서의 표현을 꺼리고,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슬픔과 같은 정서를 표현하려는 특성이 남성에 비해 높다. 이와 같이, 노년기에는 여러 정서적 특성에 있어서 유의한 성차가 확인되는데,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부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도 비효율적인 정서 대처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주관적 안녕감도 낮게 나타난다. 정서 표현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하지만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친애 욕구를 갖는 특성이 높은 수준의 정서 표현 양가성을 유지하게 할 수도 있다.

노년기에는 인생의 다른 시기보다 친밀한 대인관계를 통한 정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대인관계에서 정서표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적절하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년기에는 직접적인 정서 표현이 줄어들는데 이러한 특성이 실제로 노년기 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에 정서 표현이 다른 연령 보다는 덜 하게 된다지만 정서 표현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도 적절한 정서 표현은 대인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해주고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령 증가에 따른 정서 표현 양가성을 연구한 유경(2007)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은 청년에 비해 정서 표현 양가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성이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노년기에는 친밀한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정서 표현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관계 유지를 위해 이를 억누르고 표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특성은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으로 정서 표현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은 심리적, 신체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Pennebaker, 1985), 우울증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Morgrain & Zuroff, 1994) 노년기 정서 표현 양가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노년기 정서 경험, 대처 등의 특성에서는 성차가 확인되었으나 정서 표현이나 정서 표현 양가성에 있어서의 성차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서 표현이나 정서 표현 양가성에서 노년기에 성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차별적인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노년기 적용을 돕는 효율적인 대처와 예방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정서 표현과 정서 표현 양가성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특성이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방 법

참가자

연구 참가자는 총 214명 이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성인으로 남성 104명, 여성110명으로 총 214명(평균연령 72.83세, 표준편차 5.55)이 참여했다. 노년집단을 65세 이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65세 이상의 성인을 노인을 구분하는 우리나라 법적 기준과 노년연구에서 65세 이상을 노년집단으로 구분하는 통례를 따른 것이다. 연구 참여자 특성을 표 1 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참가자 특성

		명 (%)
결혼여부	기 혼	122 (57.0)
	이 혼	2 (.9)
	사 별	90 (42.1)
	미 혼	0 (0)
	총 합	214 (100)
교육수준	무 학	33 (17.8)
	서 당	5 (2.3)
	초 졸	66 (30.8)
	중 졸	30 (14.0)
	고 졸	46 (21.5)
	대 졸	27 (12.6)
	대학원졸	7 (3.3)
총 합	214 (100)	
건강	매우 좋다	14 (6.5)
	약간 좋다	40 (18.7)
	보통이다	15 (7.0)
	약간 좋지 않다	79 (36.9)
	매우 좋지 않다	66 (30.8)
총 합	214 (100)	
경제수준	매우 여유가 있다	38 (17.8)
	여유가 있는 편이다	43 (20.1)
	보통이다	105 (49.1)
	조금 어려운 편이다	24 (11.2)
	매우 어렵다	4 (1.8)
총 합	214 (100)	
월 가계소득	400만원 이상	15 (7.0)
	300-499만원	11 (5.1)
	200-299만원	39 (11.8)
	100-199만원	48 (22.4)
	100만원 미만	83 (38.8)
	모르겠음	18 (8.4)
총 합	214 (100)	

도구

정서 표현성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 표현성 질문지(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EEQ)는 정적 정서 표현성(예: TV를 보거나 책을 읽다가 크게 웃을 때가 있다)을 측정하는 문항 7개, 부정적 정서 표현성(예: 주위 사람들은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쉽게 안다)을 측정하는 문항 4문항, 친밀 표현성(예: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었을 때 나는 당황해서 고마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역문항)을 측정하는 5문항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7점(전적으로 동의한다) 사이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원(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는 .78 이었다.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질문지(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 표현 상황에서 개인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목표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에 주목하고 정서표현, 정서 조절, 정서 규제, 미묘한 정서 표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양가성(예: 나는 나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창피당하거나 상처받게 될까 걱정한다)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1점)에서부터 매우 자주 그렇게 느낀다(5점)까지 Likert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원(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는 .91 이었다.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PGCMS(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Lawton, 1975; Liang & Bollen, 1983)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이가 든 성인들을 대상으로 측정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척도로 평정감(non-agitation)을 측정하는 문항 6개, 노화에 대한 만족

(aging satisfaction)을 측정하는 문항 5개,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외로움(life satisfaction/loneliness)을 측정하는 문항 6개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2006)에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각 하위척도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평정감이 .88, 노화에 대한 만족이 .79, 삶에 대한 만족은 .82 였다.

인지기능 측정

노년 집단의 전반적인 인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K-MMSE(Korean-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 강연욱, 나덕렬, 2003)를 실시하였고, 나이와 학력에 따른 K-MMSE 기준(강연욱, 2006)에 따라 인지기능 수준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중 이 기준에 따라 치매 혹은 인지기능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없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연구 참가자의 연령, 성별, 학력, 건강, 경제적 수준, 결혼 상태 등의 인구학적 변인들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절차

연구 참여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전문조사원을 활용하여 개인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원들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전문 기관에서 실행되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6명의 전문가(경력 3년-10년)에 의해 이루어졌다. 수도권 노인대학,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노당 등에 공문을 보내 연구 협조 요청 후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모집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대부분은 지역에 거주하며 해당 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노인들이었다. 기관 내 상담실에서 일대일 면접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고, 약 40분-50분이 소요되었다. 전문 조사원과 연구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수고가 지급되었다.

결 과

정서 표현과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

노년기 정서표현의 특성을 정적 표현, 부적 표현, 친밀 표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2). 일원 피험자 내 변량 분석을 통해 정적 표현, 부적 표현, 친밀 표현 중 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였다. 남성 노인의 경우 부적 표현을 정적 표현과 친밀 표현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2,206)=6.98, p<.001$), 여성 노인은 표현 양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2,206)=.06, p=n.s.$). 일원 피험자 간 변량 분석을 통해 표현 양식에 따라 성차가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정적 표현 $F(1,212)=2.92, p=n.s.$; 부적 표현 $F(1,212)=1.45, p=n.s.$; 친밀 표현 $F(1,212)=.13, p=n.s.$).

성별에 따른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해 일원 피험자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이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212)=11.39, p<.001$; 표 2).

정서 표현과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 남성과 노인 여성의 정서적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있다(유 경 등,

2009; Adelman et al., 1989; LeFrance et al., 1992; Monin et al., 2009; White et al.,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 표현성과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주관적 안녕감에 있어서는 유의한 성차가 확인되었는데,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남성 노인 평균 3.27, 표준편차 .62; 여성 노인 평균 2.88, 표준편차 .77;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 $t(212)=-4.00, p<.001$).

인구통계학적 변인, 정서 표현,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여러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노인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변인으로 경제수준, 건강 상태, 학력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인구통계학적 변인, 정서 표현과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남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그 결과, 2단계 모델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경제 상태, 정적 표현, 그리고 부적 표현이 남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 남성 노인의 경우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즉, 경제 상태가 좋고, 정적 표현을 더 많이 하고, 부적 표현을 덜 하는 경우 주관적 안녕감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정서 표현,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종 모형이 유의한

표 2.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정적 표현 평균 (표준편차)	부적 표현 평균 (표준편차)	친밀 표현 평균 (표준편차)	정서표현 양가성 평균(표준편차)
남 N=104	3.20(.84)	3.58(.88)	3.35(.81)	3.41(.68)
여 N=110	3.42(.99)	3.42(.98)	3.39(.79)	3.71(.61)
합 N=214	3.31(.93)	3.50(.93)	3.37(.80)	3.56(.66)

표 3.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정서표현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남성 노인

투입단계	변인	$b(\beta)$	t	R^2	R^2 변화량	F	F 변화량
1단계	경제상태	.23(.31)	3.18**	.19	.19	7.66***	7.66***
	교육연수	.06(.04)	1.53				
	건강상태	.09(.18)	1.99*				
2단계	경제상태	.25(.34)	3.48**	.28	.09	6.14***	3.94**
	교육연수	.05(.12)	1.27				
	건강상태	.08(.15)	1.72				
	정적표현	.15(.21)	2.10**				
	부적표현	-.18(-.26)	-2.84*				
	친밀표현	.01(.01)	.03				
3단계	경제상태	.25(.35)	3.46***	.28	.00	5.21	.01
	교육연수	.05(.12)	1.22				
	건강상태	.08(.15)	1.65				
	정적표현	.15(.21)	2.09*				
	부적표현	-.18(-.26)	-2.80**				
	친밀표현	.01(.01)	.01				
	정서표현양가성	-.01(-.01)	-.11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정서표현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여성 노인

투입단계	변인	$b(\beta)$	t	R^2	R^2 변화량	F	F 변화량
1단계	경제상태	.05(.18)	1.85	.07	.07	2.68*	2.68*
	교육연수	.12(.21)	2.26				
	건강상태	.01(.01)	.13				
2단계	경제상태	.04(.15)	1.61	.15	.08	3.04**	3.22*
	교육연수	.08(.14)	1.44				
	건강상태	.02(.03)	.35				
	정적표현	.15(.20)	1.94*				
	부적표현	-.11(-.14)	-1.45				
	친밀표현	.15(.16)	1.59				
3단계	경제상태	.04(.14)	1.49	.18	.03	3.20**	3.68*
	교육연수	.07(.12)	1.25				
	건강상태	.01(.02)	.16				
	정적표현	.16(.21)	2.09*				
	부적표현	-.10(-.12)	-1.34				
	친밀표현	.11(.12)	1.17				
	정서표현양가성	-.23(-.18)	-1.92*				

* $p < .05$

것으로 나타났다. 정적 표현과 정서 표현 양가성이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4). 즉, 정적 표현을 자주 하고,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적게 느끼는 것이 노년기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정서 표현과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정서 표현에 있어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은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즉,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정서 표현,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남성 노인은 경제 상태, 정적 표현, 부적 표현이 주관적 안녕감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여성 노인은 정적 표현과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주관적 안녕감 유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관계없이 노년기에 정적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에는 직접적인 정서 표현이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연구들(Blanchard-Fields, 1999; Timmers, et al., 1998)이 있지만 직접적인 정서 표현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더라도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다. 노년기에는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 심리적, 신체적 건강,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목표인 친밀한 대인관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유 경과 민경환, 2005; Carstensen, 1992; 1995; Lawton, 1989) 궁극적으로 노년기 정서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남긴다.

남성 노인의 경우, 정서 표현 중 정적 표현 또는 친밀 표현 보다는 부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것은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적 정서를 억누르지 않고 표현하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Bell et al., 1978; Fridlund et al., 1984; King et al., 1990), 대인관계에서 직접적인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은 관계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Coats & Blanchard-Fields, 2008; Kubany, et al., 1998).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노년기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남성 노인들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적 정서를 직접적이고 강하게 표현하기 보다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개인의 안녕감과 대인관계에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적 표현을 자주 하는 남성 노인들에게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노년기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정서 표현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는 청년 대상의 연구(Brody, 1999; Kring & Gordon, 1998; Lennon & Eisenberg, 1987)와 노인 대상의 연구(LaFrance & Banaji, 1992; Monin, et al., 2009)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정서 표현에 있어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연구 대상(연령, 코호트 등)의 특성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연구에 따라 사용하는 척도에서 측정하는 정서 표현 특성의 차이(정적 표현, 부적 표현, 친밀 표현 등의 정서 표현의 종류, 분노, 슬픔, 행복 등 표현하는 정서 종류, 얼굴 표정 등)에 따른 것인지, 이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의 경우,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더 많이 경험하며 이러한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령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와 대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Gross와 Levenson(1993), Gross와 John(1995), 장정주와 김정모(2008)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정서를 더 억제하며,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들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연령대와 노년기 간의 특성 차이로 볼 수도 있지만, 샘플의 특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종단으로 이루어지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노년기의 특성으로 가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나라 남성 노인들의 경우에는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할 필요가 없었으나,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로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운 문화 속에서 이를 억압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은 친밀한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정서 표현으로 인해 관계가 침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더 많이 경험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많이 경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신체화 장애나 우울 장애와 관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Emmons & Colby, 1995; Pennebaker, 1985)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노년기의 정서 표현 양가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 표현 양가성을 많이 경험하는 노인들에게 대인관계에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원해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노년기의 정서적 특성과 적응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은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적 상태, 건강 상태, 학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성 노인들은 경제적 상태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 노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정서적 특성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

은 결과는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은 정서적 삶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성 노인들은 남성 노인에 비해 우울에 취약하고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특성이 있으므로 여성 노인들의 정서적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에 정적 표현을 많이 하고 부정 표현을 덜 하고,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덜 경험하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서 선행연구 개관에서 밝힌 두 가지의 연구 흐름인 정서 복잡성 연구와 정서 조절 연구 중 정서 조절 연구 결과들과 더욱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에는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대인관계에 위협이 되는 정서의 직접적인 표현은 삼가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일련의 노년기 정서 조절 관련 연구들(Gross, et al., 1997; Kubany, et al., 1998; Tiedens, 2001; Timmers, et al., 1998; Zeman & Garber, 1996)은 노인들이 정서 표현에 있어 상황에 따라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정서 표현을 하거나 또는 정서 표현을 삼가는 특성을 차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제안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은 현 상태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여러 설명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한 상태이며, 이러한 설명이 학문적으로 설득력 있는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양적, 질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연령대와 노년기는 상이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노년기의 정서 표현과 정서 표현 양가성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특정 코호트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인지 노년기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코호트를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정서 표현과 정서 표현 양가성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평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을 갖는 노인들이나 시설에 있는 노인들의 정서 표현과 정서 표현 양가성이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정서 표현과 정서 표현 양가성이 노년기 심리적 적응에 대해 갖는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질문지를 통한 면접 방식으로 노인의 정서표현 특성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서적 상황에서의 노인의 정서 경험, 정서 표현, 정서 표현 양가성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실험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년기의 정서 경험의 강도와 정서 표현 간의 관계, 정서 표현과 대인관계, 사회적 목표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하여 노년기 정서 표현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를 밝히는 체계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연옥, 나덕렬 (2003).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인천: Human Brain Research & Consulting co.
- 강연옥 (2006). K-MMSE(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의 노인 기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1-12.
- 유경 (2007). 정서적 특성이 장노년기 주관적 안녕감 유지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유경, 강연옥 (2009). 노년기 정서 경험과 대처 양식의 특성: 우울 집단과 정상 집단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3), 893-910.
- 유경, 민경환 (2005). 정서 대처 양식과 정서 인식이 장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19(4), 1-18.
- 유경, 이주일, 강연옥, 박군석 (2009). 노년기 정서 경험의 변화와 주관적 안녕감: 종단 연구 분석. *한국노년학*, 29(2), 729-742.
- 유주현 (2000).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과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 오경자 (2006). 정서인식능력,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정서표현성이 중년 기혼 여성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113-125.
-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 117-140.
- 장정주, 김정모 (2008). 정서적 자각, 표현 및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대인관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20(3), 697-714.
- 최해연 (2008).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억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2006).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춘천: 한림대학교출판부.
- 한정원 (1997). 정서 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delman, P. K., Antonucci, T. C., Crohan, S. E., Coleman, L. M. (1989). Empty nest, cohort, and unemployment in the well-being of midlife women. *Sex Roles*, 20, 173-189.
- Barret, L. F., Lane, R. D., Sechrest, L., & Schwartz, G. E. (1999). Sex difference in emotional awar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1027-1035.
- Bell, P. A., & Byrne, D. (1978). Repression-sensitization. In H. London & J. E. Exne(Eds.), *Dimension of personality*. NY: Wiley, 449-485.
- Blanchard-Fields, F. (1989). Controllability and adaptive coping in the elderly: An adult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P. S. Fry(Ed.), *Advances in psychology: Vol. 57. Psychological perspectives of helplessness and control in the elderly(pp. 43-61)*. Amsterdam: North-Holland.
- Blanchard-Fields, F. (1998). The role of emotion in social cognition across the adult life span. In K. W. Schaie & M. P. Lawton (Eds.),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volume 17(pp.206-237)*. New York: Springer.
- Brandstädter, J., Wentura, D., & Greve, W. (1993). Adaptive resources of the aging self: Outlines of an emergent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 Behavioral Development*, 16, 323-349.
- Brandstädter, J., & Rothermund, K. (2002). International self-development: Exploring the interfaces between development, intentionality, and the self. In L. J. Crockett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48. Agency, motivation, and the life course (pp.31-75).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Brody, L. R. (1999). *Gender, emotion, and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stensen, L. L. (1992). Social and emotional patterns in adulthood: Support for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Psychology and Aging*, 7, 331-338.
- Carstensen, L. L. (1995). Evidence for a life span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 151-156.
- Carstensen, L. L. (1999). A life-span approach to social motivation. In J. Heckhausen & C. Dweck (Eds.), *Motivation and self regulation across the life-span*(pp.341-364).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stensen, L. L., & Turk-Charles, S. (1994). The salience of emotion across the adult life span. *Psychology and Aging*, 9, 259-264.
- Carstensen, L., Pasupathi, M., Mayr, U., & Nesselroade, J. (2000). Emotional experience in everyday life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4), 644-655.
- Coats, H. A., & Blanchard-Fields, F. (2008). Emotion regulation in interpersonal problems: The role of cognitive-emotional complexity, emotion regulation goals, and expressivity. *Psychology and Aging*, 23(1), 39-51.
- Cox, T., McCay, C. (1982). Psychological factors and psychophysiological mechanism in the etiology and development of cancer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6, 381-396.
- DePaul, B. N. (1992). Nonverbal behavior and self-present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1, 203-243.
- Emmons, R. A., & Colby, P.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47-959.
- Fridlund, A. J., Newman, L. B., & Gibson, E. L. (1984). Putting emotion in behavior medicine: Discrete-emotion psychophysiology and its relevance for research and therapy. In C. Van Dyke, L. Temoshok, & L. S. Zegan(Eds.), *Emotions in health and illness*(pp.117-134). New York: Grune & Stretton.
- Gross, J. J., & John, O. P. (1995). Faces of emotional expressivity: three self-report factors and their correl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 555-568.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Gross, J. J., & Levenson, R. W. (1993). Emotional suppression: Physiology, self-report, and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6), 976-986.
- Gross, J. J., Carstensen, L. L., Pasupathi, M., Tsai, J., Skorpen, C. G., & Hsu, A. Y. C. (1997). Emotion and aging: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Psychology and Aging*, 12(4), 590-599.
- Heckhausen, J. (1997). Developmental regulation across adulthood: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of age-related challen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76-187.
- Jensen, R. (1987). Psychological factors predicting the course of breast cancer. *Journal of Personality*, 55, 317-342.

- Josephs, S., Williams, R., Irwing, P., & Cammock, T. (1994). The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measure to assess attitudes towards emotional ex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6), 869-875.
- Kennedy-Moore, E., & Watson, J. (1999). *Expressing Emotion*. NY: Guilford Press.
- King, A. M. (1993). Emotional expression, conflict over ex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Relationships, 10*, 601-607.
- King, A. M., Emmons, R. A. (1990).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ositional expressivenes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King, A. M., Emmons, R. A. (1991). Psychological, physic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conflict, and control.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5*, 131-150.
- Kring, A. M., & Gordon, A. H. (1998). Sex differences in emotion: expression, experience,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86-703.
- Kubany, E.S., Bauer, G. B., Muraoka, M. Y., Richard, D. C., & Read, P. (1995). Impact of labeled anger and blam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4*, 53-60.
- Labouvie-Vief, G., & Medler, M. (2002). Affect optimization and affect complexity: Modes and styles of regulation in adulthood. *Psychology and Aging, 17*(4), 571-588.
- Labouvie-Vief, G., Hakim-Larson, J., & Hobart, C. J. (1987). Age, ego, level, and the life-span development of coping and defense processes. *Psychology and Aging, 2*, 286-293.
- LaFrance, M., & Banaji, M. (1992). Toward a consideration of the gender-emotion relationship. In M. S. Clark (Ed.), *Emotion and social behavior* (pp. 178-201). Newbury Park: Sage.
- Lang, F. R., & Carstensen, L. L. (2002). Time counts: Future time perspective, goals and social relationships. *Psychology and Aging, 17*, 125-139.
- Lawton, M. P. (1989). Environmental proactivity and affect in older people. In S. Spacapan & S. Oskamp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aging*(pp.135-163). Newbury Park: Sage.
- Lennon, R., & Eisenberg, N. (1987). Gender and age difference in empathy and sympathy. In E. Eisenberg & J. Strayer(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pp.195-217).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eberman, M. D., Eisenberg, N. I., Crockett, M. J., Tom, S. M., Pfeifer, J. H., & Way, B. M. (2007). Putting feeling into words: affect labeling disrupts amygdala activity in response to affective stimuli.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18*, 421-428.
- Malatesta, C. Z., & Izard, C. E. (1984). *Emotions in adult development*. Beverly Hills: Sage.
- Malatesta, C. Z., Flore, M. J., & Messina, J. J. (1987). Affect, personality, and facial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older people. *Psychology and Aging, 2*, 64-69.
- Mongraine, M., & Zuroff, D. C.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negative life events: Mediators of depressive symptoms in dependent and self-critical individua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 447-458.
- Monin, J. K., Martire, L. M., Schulz, R., & Clark, M. (2009). Willingness to express emotions to caregiving spouses. *Emotion, 9*(1), 101-106.
- Pelletier, K. R. (1985). *Mind as healer, mind as slayer*. New York: Delacarte Press.
- Pennebaker, J. W. (1985).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somatic disease: Exploring the roles of behavior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iding. *Canadian Psychology, 26*, 82-95.

- Pennebaker, J. W., Barger, S. D., & Tiebout, A. (1989). Disclosure of trauma and health among Holocaust survivor. *Psychosomatic Medicine*, *51*, 577-589.
- Riggio, R. E., & Friedman, H. S. (1982). The intercorrelations of self-monitoring factor personality trait, and nonverbal social skill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7*, 33-45.
- Sullins, E. S. (1989). Perceptual salience as a function of nonverbal expressiv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 584-595.
- Tiedens, L. Z. (2001). Anger and advancement versus sadness and subjugation: The effect of negative emotion expressions on social status conferr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86-94.
- Timmers, M., Fischer, A. H., & Manstead, A. R. S. (1998). Gender differences in motives for regulating emo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974-985.
- White, L., & Edgards, J. N. (1990). Emptying the nest and parental well-being: An analysis of national parental dat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235-242.
- Zeman, J., & Garber, J. (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It depends on who is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 957-973.

The Effects of Emotion Express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Kyung Ry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emotion express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 expressiveness on the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214 older adults($m=72.83$, $sd=5.55$)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Emotional expressivit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were measured and analyzed. In results,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in emotional expressivity. However, old women experience mor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han old men.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economic status, positive expressivity, and negative expressivity significantly predict old men's subjective well-being and positive express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ity significantly predict old women's subjective well-being. The important meanings of emotional express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ver quality of elderly's emotional life were discussed.

Keywords : *emotional expressivit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ging, SWB(subjective well-being), gender differences*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12월 10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0년 2월 20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2월 22일